

近代化 過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役割

— 亞細亞 太平洋地域 圖書館 國際會議에 즈음하여 —

오는 5月 28日부터 30日까지 3日間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近代化 過程에 있어서의 圖書館이 擔當하여야 할 役割이 무엇인가”란 主題를 가지고 亞細亞 太平洋地域 圖書館 國際會議을 가지게 되었다.

本會議는 한 國家의 近代化 過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役割에 關係되는 諸問題를 檢討함으로써 國內 政策 樹立에 寄與하고, 地域社會 開發을 促進하며, 아울러 圖書館 開發을 통한 國際協力을 增進하려는 圖書館人들의 團合된 努力이며, 한 나라의 知識을 담은 用器로서 圖書館의 役割을 通하여 祖國의 近代化 課業을 成功的으로 이끌수 있는 길을 摸索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此際에 本會議의 主題와 關聯하여 몇가지 問題를 提言하고자 하는 것이다.

1) 國家發展에 對한 圖書館의 役割을 想起하고자 한다.

오늘 날 우리는 잘 살수 있는 길을 向해 集約된 國民의 自覺으로 새로운 歷史와 文化發展 事業에 不斷한 努力을 繼續하고 있다. 우리 社會는 到處에서 일어나고 있는 낡은것과 새로운것의 交替와 畧비를 맞고 자라나는 竹筍처럼 올라가는 高層 建物들, 여기에서 우리는 來日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습을 向해 不斷히 挑戰하는 우리의 뜻은 進歩된 國家建設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建設過程에 있어서 必要한 새 知識의 發見과 創造가 繼續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發見되거나 創造된 새 知識은 保存하고, 保存된것은 또 後孫에게 傳授되어 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循環作用은 圖書館에 依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圖書館은 體系있는 知識의 情報를 蒐集 整理 提供함으로써 모든 知慧와 政策을 流出시키는 힘의 源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 나라의 知識의 用器로서의 圖書館이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無視되어 왔다.

이것은 一般 國民들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의 不足으로 因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圖書館 資料에 對한 效果의인 利用을 等閑視해 온 過去의 教育方法과 그 內容이 改善되지 못한 點과 이를 是正하려는 政策의 貧困에서 그 緣由를 찾아야 할것이다.

우리에게 法(圖書館法)은 있으나 그 法 精神에 따를만 한 施策은 없다. 몸부림은 있어도 藥은 없다. 良醫와 良藥을 찾는 일은 患者에게 있어서 아주 緊要한 일이다. 오늘 날 모든 發展途上의 나라들이 찾아서 이룩해야 할 가장 重要한 일의 하나가 教育開發을 위한 方法을 백방으로 찾아서 積極적으로 發展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圖書館을 통한 教育, 이른바 새교육은 褪色되고 있는 것이다.

教育을 開發함으로써 機待하는 가장 重要한 要件은 國家發展의 捷徑을 發見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먼저 國民 大衆의 自覺이며 國民의 自覺은 知的 啓蒙에 있기 때문이다.

2) 經濟 및 國民所得 成長에 앞서는 政策을 流出시키는 情報 獲得의 施設로서의 圖書館에 對한 깊은 理解를 促求하고자 한다.

모든 部面에서 發展을 이룩하는데는 先祖들의 經驗과 業績을 물려 받아 現在에서 生産된 直接의인 經驗을 그 위에 追加하면서 먼저의 것을 加減修正하여 다음 世代로 傳授한다. 이 過程을 통한 人間의 努力은 끊임 없이 繼續되어 오늘 날과 같은 自然科學 및 應用科學을 낳았다. 이렇게 發展된 科學과 技術은 다시 産業에 應用되어 生産의 發展을 招來한다. 生産은 科學과 技術을 土臺로 漸次 그 規模의 擴大를 促進하고 擴大된 規模는 새로운 科學技術을 구하게 되며, 새로운 科學技術은 또다시 새로운 産業으로 擴大 發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過程의 되풀이는 學術 및 調查 活動에 關한 새로운 理論 發明 또는 研究 結果에 關한 情報 獲得의 노력을 必要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産業發展은 새 知識의 創造와 그 量質에 併行하며, 發展의 度가 正比例하고, 反面 圖書館의 量質에 比例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言及한 바 있지만 圖書館은 새로 創造 또는 發見되는 것들의 記錄을 保存 傳授하는 곳이며 保存 傳授라는 循環作用을 통해 다시 새로운 創造와 發見의 母體로서 登場시키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保存과 傳達이라는

過程속에서 記錄된 이들 知的 文化財는 不斷히 利用되어 恒常 새로운 發見과 創造를 낳고 이를 追加 累積하여 量과 質이 同時에 增大되며 來日이란 새로운 世界로 이어 주기 때문이다.

國家의 發展이 經濟成長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과 來日이 連結되는 架橋로서 올바른 政策 資料를 提供해주는 情報의 産室인 圖書館에 對한 새로운 認識을 強力히 促求하는 것이다.

3) 圖書館法을 改定하여 圖書館 施設의 擴充과 專門職 司書들의 處偶가 改善되고 保障될 수 있는 施策이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法을 制定하는 뜻은 政府가 關係事業을 擔當 推進함에 있어서 國民의 福利와 公共의 利益을 增進하려는 國家의 意思라고 하겠다.

지난 1963年 10月 28日 全文 29條의 圖書館法이 革命政府에 依해서 制定 公布되었다. 이것은 革命政府가 그동안 文化行政의 亂脈狀으로 빚어진 疏外당한 文化의 産室인 圖書館 事業을 推進하려는 國家 意思의 表現이라 하겠다. 따라서 同法 第1條에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文化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目的을 實現시키기 위한 國家의 뒷 받침이 消極的으로 提示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이 人口 比例에 依하면 57萬名에 1個館인 實情으로서 人口 2,300名에 1個館인 「스위덴」이나 人口 3,300名에 1個館인 「덴마크」에 비한다면 부끄럽기 한이 없는 實情인체 非生産性 分野에 대한 投資抑制란 名分(?)이 계속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同法 第7條는 이 뜻을 교묘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表現하고 있는 實證인 것이다. 即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向上을 위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였다.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이 언제 여유가 있어서 生産性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事業에 投資될 것인가. 豫算의 範圍 안에서 세워도 좋고 그렇지 못하면 안세워도 좋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此際에 當局은 同條項을 改定하고 豫算을 勘案하여 計劃된 年次事業을 即時 着手하여, 最少限 群單位의 1個館 設立 方案만이라도 推進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둘째, 國家가 內외의 學術 專門 資料와 政策 資料를 蒐集 確保하는데 인색함이 없기를 바란다. 圖書館이 國家의 産業에 寄與하는 役割이 絕對的이라는 必需性을 깊이 認識하여 그 保護 育成에 最大의 努力과 뒷 받침을 위해서 적절하고 効果的인 施策과 豫算을 割愛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셋째, 圖書館을 通하여 蒐集된 資料를 充分히 活用시킬 수 있는 制度의 確立과 環境의 改善은 勿論이지만 資料의 蒐集 整理 提供의 業務를 擔當하는 專門職 司書들에 對한 處偶의 改善과 나아가서는 別定職化의 現實化 그리고 特殊 勤務手當의 支給 等に 對한 當局의 特別한 配慮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는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變革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다 우리의 잠재력과 무한한 可能性을 發見하고 確信함으로써 來日의 信念을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加速的으로 發展하는 學術과 文化를 外面하고 世界史의 餘白에서 방황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도 財政의 貧困이란 無責任한 形式 論理로 지나간 날의 無能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産業이 復興하는 길이나 經濟가 成長 發展하는 것도 새로운 知識의 創造와 創造된 知識의 保存과 그리고 效果의 이고 敏括한 入收와 利用이 없이는 成遂될 수 없는 것이며, 그 때문에 圖書館은 發展의 錠줄이며 先進國에서는 社會의 心臟이라고 부르고 積極的으로 保護 育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圖書館은 民族과 國家發展의 求心點이며 叡知의 溫床이기 때문이다.

한 國家의 圖書館의 發達과 補給 그리고 成長 整列은 그 나라의 文化를 整列 整頓하는 일이며,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고 富強의 길로 引導한다고 하는 事實을 우리는 깊이 認識하여 今後의 圖書館 事業이 劃期的인 轉機를 마련하였다는 歷史的인 時點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거듭 強調하거니와 이번 會議을 通해서 發展途上에 있는 모든 나라의 現像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國民 大衆의 偉대한 覺醒이 急速히 國家發展을 實現시키려는 人間的인 勞力으로 나타나며, 그 偉대한 覺醒은 國民의 知的 啓蒙에 있고 그 啓蒙의 母體가 된 것이 圖書館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이 나라의 蓬토 위에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金仁遠(韓國圖書館協會 企劃部長)